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참 고

금융투자협회
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

보도	2025.3.14.(금) 조건	배포	2025.3.13.(목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	책임자	실 장	박재영	(02-3145-5630)
		담당자	팀 장	김구연	(02-3145-5636)
	한국거래소 공매도특별감리부	책임자	부 장	우민철	(02-3774-9250)
		담당자	팀 장	김정연	(02-3774-9832)
	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	책임자	부 장	김영규	(02-2003-9370)
		담당자	팀 장	이정재	(02-2003-9380)

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e-팜플렛 배포

- 무차입 공매도 재발 가능성 등 시장의 우려에 대해
정확한 사실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-

I 개 요

- 그간 무차입 공매도 재발 가능성, 공매도 전산화의 실효성 등 공매도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만·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
- 이에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사실에 기반한 일문일답 형식의 e-팜플렛을 제작·배포

e-팜플렛 개요

- ☑ (구성·특징) 공매도 재개 관련 시장의 우려를 질의·응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그림 및 쉬운 설명을 곁들여 이해가능성을 제고
- ☑ (배포처) 금융감독원(dart.fss.or.kr) 및 한국거래소(kind.krx.co.kr) 전자공시 사이트, 금투협회 홈페이지(www.kofia.or.kr) 및 증권사 MTS·HTS
- ☑ (배포 시점) '25.3.14.(금)

II 주요 내용

	의 문	진 실
사 각 지 대	소규모 법인 등은 여전히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것 아닌지?	☞ 그렇지 않습니다. 모든 법인에 대해 내부통제 구축 및 증권사 확인 등 이중·삼중의 감시체계가 작동
규 제 회 피	무차입 공매도 후 주문 당일 주식을 사후 차입하면 NSDS*로 적발할 수 없는 것 아닌지? *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(Naked Short- selling Detecting System)	☞ 아닙니다. NSDS는 거래 내역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각 매도 거래별로 잔고 초과여부 탐지가 가능하기에 공매도 후 주식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적발 가능
조 작 가능성	수기 대차거래 조작을 통한 감시 회피가 가능한 것은 아닌지?	☞ 잔고조작 행위는 적발 가능 합니다. 잔고관리는 독립된 부서의 견제· 감시를 통한 내부통제 및 NSDS의 증빙 요구 등 이중의 감시를 받음
실효성	전산화 시스템 미구축 시 과태료 만으로 제재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?	☞ 그렇지 않습니다. 삼중의 제재가 적용됩니다. 시스템 미구축에 대한 과태료 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발생시 막대한 과징금,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

III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
시장참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

※ <별첨>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e-팜플렛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